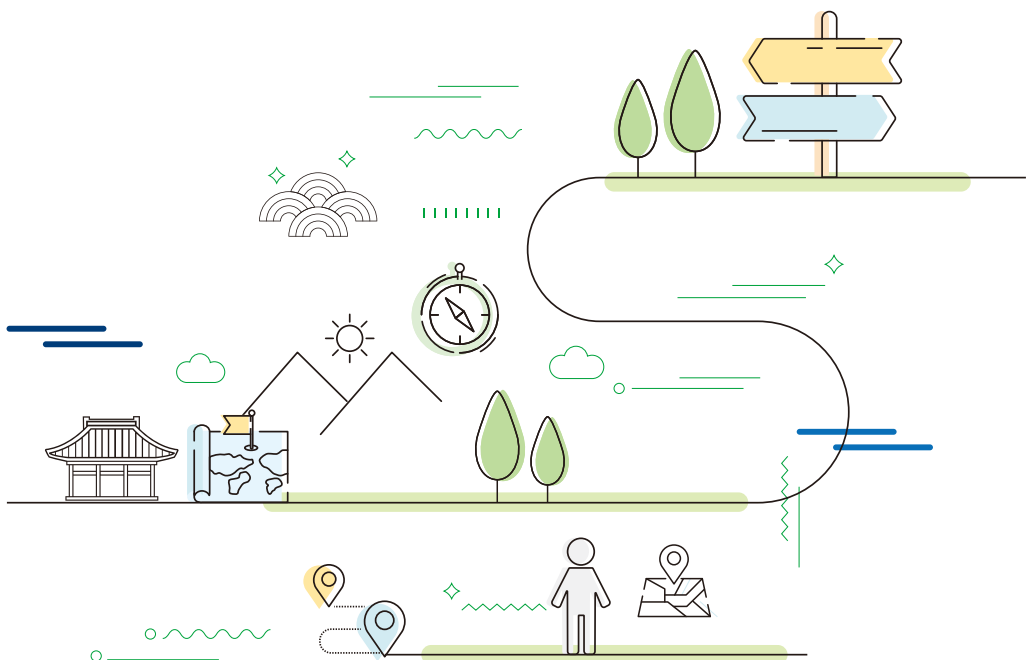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의 구조적 진단과 시사점

강길주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kjkang@ghri.re.kr

- I. 김해시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 II.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의 구조적 진단
- III. 정책과제 및 시사점



요 약

■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형 소상공인 구조

- 김해시 소상공인은 52,487개로 전체 사업체(57,474개)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김해시 소상공인 구조는 일반적인 소비도시형 자영업 구조와 달리 제조업 기반 산업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어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조업 경기 변동이 지역 소상공인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음
- 반면,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전체의 58.6%를 차지하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경제생태계

-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는 생활권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부 생활권은 장유신도시 기반의 소비상권으로 교육서비스와 개인서비스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부 생활권은 전체 소상공인의 55.6%가 집중된 원도심 소비경제 중심지로 도소매·식생활·의료 미용 업종의 매출 비중이 높음
 - 서부·동부 생활권은 산업단지 배후 경제 구조가 강하며,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김해시는 단일한 상권 구조가 아닌 소비 중심 생활권과 산업 중심 생활권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생활권 및 이동 동선 기반 맞춤형 정책 필요

- 소상공인 정책은 획일적 골목상권 지원을 넘어 산업정책과 도시공간정책이 결합된 생활권 기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동물류·공급망 안정·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생태계 연계 지원이 요구되며,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상권진단·업종전환·디지털전환·재창업 지원 중심의 구조개선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생활권별 업종 분포, 공실률, 유동인구, 매출 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상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생활권과 실제 소비·이동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I. 김해시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 소상공인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 주체이자 지역산업생태계의 기초 단위로서 정책적 위상을 갖고 있음
 -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으로 정의됨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연간매출액이 140억 이하, 업종별 차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김해시 소상공인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상 기준을 적용함
 - 명확한 소상공인 범위 설정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등 법률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를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¹⁾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과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설정함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지역 제조업 생산활동, 물류, 산업단지 배후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의함
 -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소비활동에 직접 연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의함
- 김해시의 전체 사업체 57,474개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52,487개로 나타남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025.12.기준)
 - 김해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1.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소상공인 비중 (87.3%) 대비 약 4%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 있음

1) 통계법 제22조에 근거, 국가데이터처가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생산단위(사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공식 통계 분류 체계

- 김해시 소상공인 주요 업종을 분석하면, 생산-공급 중심의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과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임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총 14,459개로, 이중 제조업(9,652개), 건설업(2,572개), 운수업(2,235개)으로 나타남. 주로 기계, 금속, 부품 가공 등 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산업단지 배후에 입지하여 전방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27.6%의 비중으로, 제조업 업황의 부진은 산업 경기 악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생태계의 생존 위기로 파급될 수 있음

<표 1-1> 김해시 소상공인 업종별 현황(2025년 기준)

구분		소상공인 수(개)	비율(%)
공급망 연계	제조업	9,652	27.6
	건설업	2,572	
	운수업	2,235	
소계		14,459	
생활형 서비스업	도소매업	18,120	58.6
	숙박 및 음식점업	5,864	
	교육 서비스업	1,76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81	
	여가관련 서비스업	668	
	기타 개인서비스업	3,841	
소계		30,742	
기타(그 외 업종)		7,286	13.8
합계		52,487	100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 생활형 서비스업²⁾ 소상공인은 총 30,742개로 도소매업(18,120개), 숙박 및 음식점업(5,864개), 교육 서비스업(1,768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81개), 여가관련 서비스업(668개), 기타 개인서비스업(3,841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활형 서비스업은 전체 소상공인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분포함
- 이는 기술·자본적 진입장벽이 낮고 저부가가치 업종에 노동력이 집중되며,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³⁾의 생태계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기타(그 외 업종)로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분포는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가 단순 소비 중심 자영업 구조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 산업도시의 특성과 생활권별 소비경제 구조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을 의미함

2)김기희(2011), 박문수(2025) 소상공인 범주별 산업 구분에서 생활형 서비스업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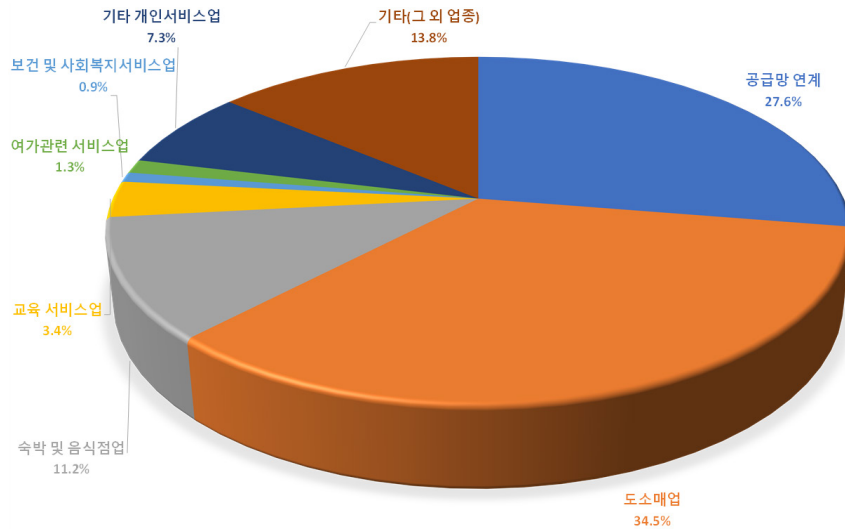
3)우리나라 소상공인 구조적 특징으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만, 치열한 과당 경쟁과 한계 생산성 직면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거 퇴출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함.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II.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의 구조적 진단

1. 제조업 중심의 소상공인 구조

- 일반적으로 경제생태계는 특정 경제주체(기업, 지역, 플랫폼 등)가 서로 연결·협력하여 가치 창출과 유통이 일어나는 구조를 의미함
-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는 일반적인 소비도시형 자영업 구조보다 제조업 기반 산업 도시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 국가데이터터치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전국 사업체 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50% 이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김해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소상공인은 45.7%,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이 27.6%의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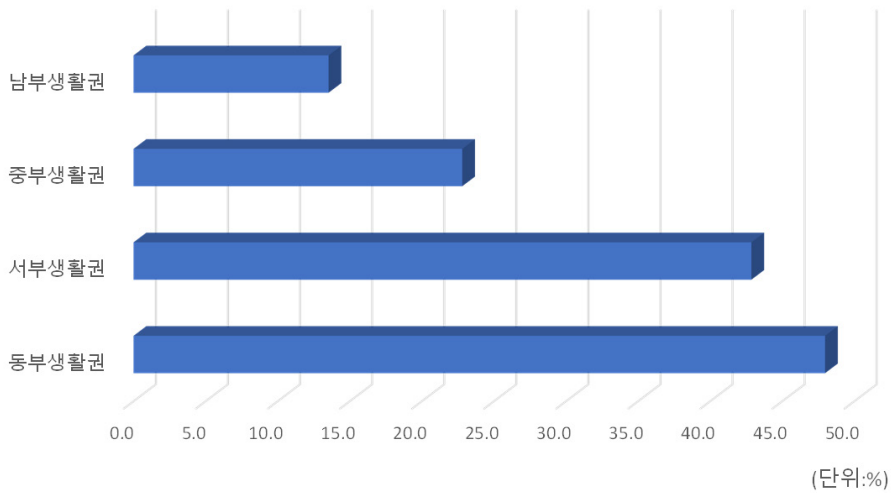
<그림 II-1> 김해시 소상공인 업종 구조(2025년 기준)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 특히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서부 생활권과 동부 생활권에서 각각 42.8%, 4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경기 변동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음
-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가공 산업 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밀접한 소상공인 경제는 제조업 부문의 경기 변동이 지역 내 영세 사업체와 서비스업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음
- 그러므로 김해시 소상공인 정책은 일반적인 골목상권 지원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정책과 연계한 공급망과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 - 2> 김해시 생활권별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 비중 (2025년 기준)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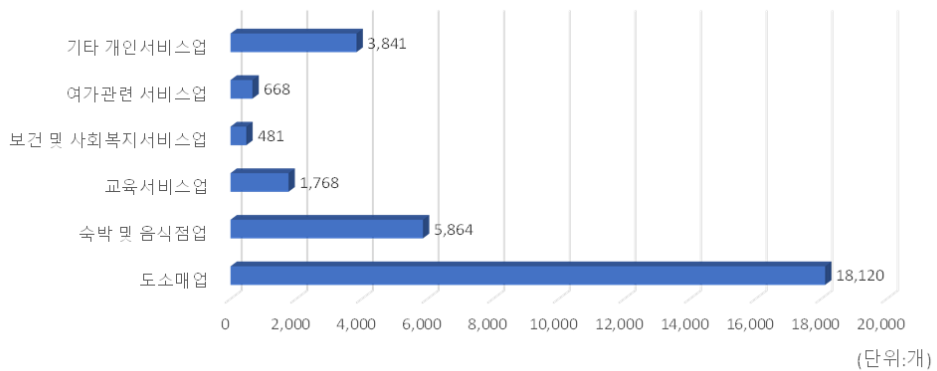
2. 생활형 서비스업의 과당경쟁 구조

- 최근 소상공인 동향⁴⁾에 따르면 생활형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중은 2023년 기준 23.2%로 OECD 평균(15.6%) 대비 높은 편임

4) 안수지(2025)

- 창업 대비 폐업률은 2020년 60.6%에서 2024년 8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김해시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 비율은 58.6%로 도소매업(18,120개) 및 숙박 및 음식점업(5,864개) 중심으로 구성됨

<그림 II-3> 김해시 생활형 서비스업 업종 구성 (2025년 기준)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 도소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 자본 부담이 적어 신규 창업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짐
 - 국가데이터처 「2024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신생 23만 개, 소멸 21만 개, 숙박·음식점업은 신생 14만 개, 소멸 13만 개로 신생과 소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생태계 구조는 공급 과잉과 과당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동일 업종의 반복 창업, 유사 업종의 집중, 저부가가치 구조, 단기 폐업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최근 배달 플랫폼 확산, 온라인 소비 증가, 프랜차이즈 확대 등의 소비 구조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

<그림 II - 4> 생활형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



자료 : Google NotebookLM(2026.5.14.생성)

3. 생활권별 소상공인 경제생태계 특징

- 김해시 생활권을 4개 권역⁵⁾(중부, 남부, 서부, 동부)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생활권에 따라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를 분석함
- 김해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는 중부·남부권의 소비 중심 경제와 서부·동부권의 산업단지 기반 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원도심 상권 및 유동 인구 기반 소비경제 중심지, 신도시 생활서비스 경제, 산업단지 배후 경제 등의 특징이 생활권별로 나타나고 있어, 획일적 지원 정책보다 권역별 맞춤형 접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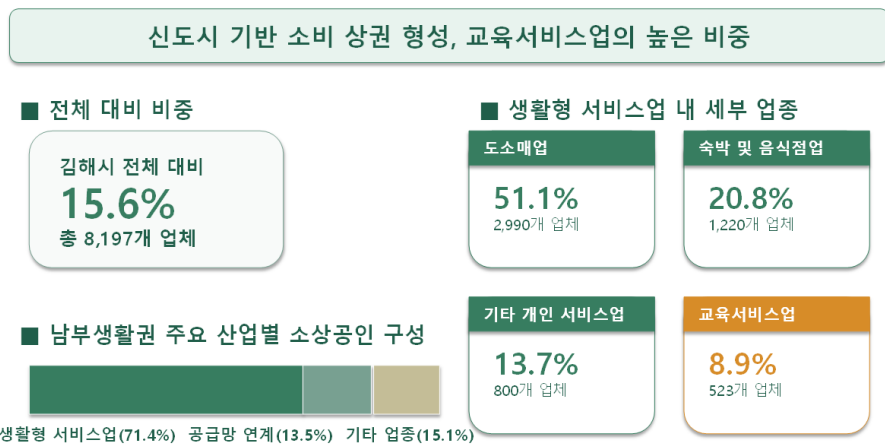
5)2035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구분함

1) 생활권별 업종 분포

■ 남부 생활권(장유1·2·3동)

- 남부 생활권은 김해시 소상공인의 약 15.6%가 집중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은 8,197개로 나타남
- 주요 산업별 구성으로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약 13.5%(1,109개),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약 71.4%(5,855개)로 나타남
- 생활형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이 51.1%(2,990개), 숙박 및 음식점업 20.8%(1,220개), 기타개인서비스업 13.7%(800개), 교육서비스업 8.9%(523개)순으로 나타남
- 신도시 기반의 소비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두드러짐

<그림 11-5> 남부 생활권 소상공인 생태계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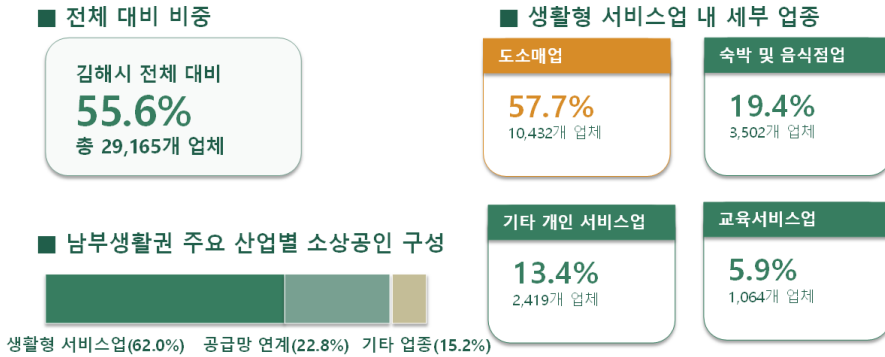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 중부 생활권(주촌면, 내외동 등 동지역)

- 중부 생활권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9,165개로 전체의 55.6%가 집중된 중심 생활권으로 나타남
- 산업별 구성은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약 22.8%(6,650개),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약 62.0%(18,091개)로 나타남
- 생활형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이 57.7%(10,432개), 숙박 및 음식점업 19.4%(3,502개), 기타개인서비스업 13.4%(2,419개), 교육서비스업 5.9%(1,064개)순으로 나타남
- 원도심 유동인구 기반의 소비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소매업의 비중이 두드러짐

<그림 II-6> 중부 생활권 소상공인 생태계 현황 및 특징

원도심 유동인구 기반 소비 상권 형성, 도소매업의 높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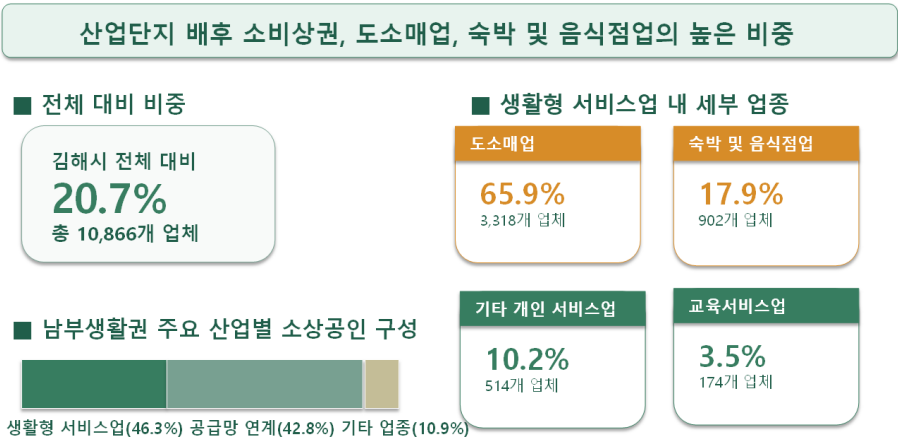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 서부 생활권(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 서부 생활권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10,866개로 김해시 소상공인의 약 20.7%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구성은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약 42.8%(4,657개),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약 46.3%(5,035개)로 비슷한 규모를 가짐
- 공급망 연계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형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이 65.9%(3,318개), 숙박 및 음식점업 17.9%(902개), 기타개인서비스업 10.2%(514개), 교육서비스업 3.5%(174개)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배후 소비 기능과 근린 생활서비스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그림 II - 7> 서부 생활권 소상공인 생태계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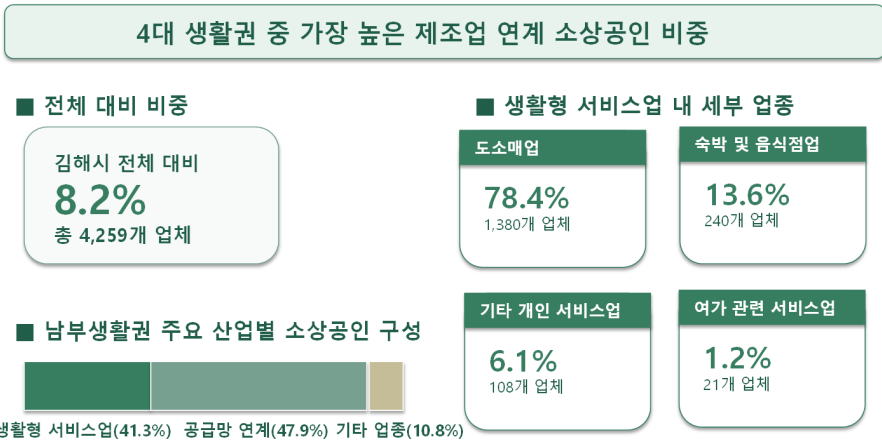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 동부 생활권(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 동부 생활권은 소상공인 비중이 약 8.2%(4,259개)로 김해시 4대 생활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구성은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약 47.9%(2,043개),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약 41.3%(1,761개)로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음
- 생활형 서비스업 내에서는 도소매업이 78.4%(1,380개), 숙박 및 음식점업 13.6%(240개), 기타개인서비스업 6.1%(108개), 여가관련 서비스업 1.2%(21개)순으로 나타남

<그림 II-8> 동부 생활권 소상공인 생태계 현황 및 특징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2) 주요 업종의 생활권별 매출

-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의 지역별 소비 동향을 참고하여, 생활형 서비스업 중심으로 주요 업종의 매출 규모를 분석함

- 생활형 서비스 세부 업종으로 분류된 교육, 의료·미용, 식생활, 레포츠 및 문화취미 업종의 생활권별 매출과 주요 소비층은 다음과 같음

■ 교육

- 2025년 기준 교육업종의 김해시 전체 매출액은 약 62,925백만 원으로 나타남
- 남부 생활권(장유1·2·3동)에서 전체 매출의 47.9%(30,145백만 원)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유 3동이 22,034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장유 1동, 장유 2동 순으로 나타남
- 중부 생활권(주촌면, 내외동 등 동지역)은 46.8%(29,500백만 원)의 비중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부와 동부 생활권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부와 중부 생활권에서 교육업종 전체 매출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된 소비층은 40~50대 학부모로 추정됨

■ 의료·미용

- 2025년 기준 의료·미용업 김해시 전체 매출액은 약 459,764백만 원으로 나타남
- 중부 생활권(주촌면, 내외동 등 동지역)에서 전체 매출 중 64.7%(297,739백만 원)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 지역별로는 내외동이 112,795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북부, 활천, 부원동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남부 생활권(장유1·2·3동)이 29.2%(134,435백만 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부 생활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부와 중부 생활권에서 의료·미용 업종 전체 매출액의 9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된 소비층은 30~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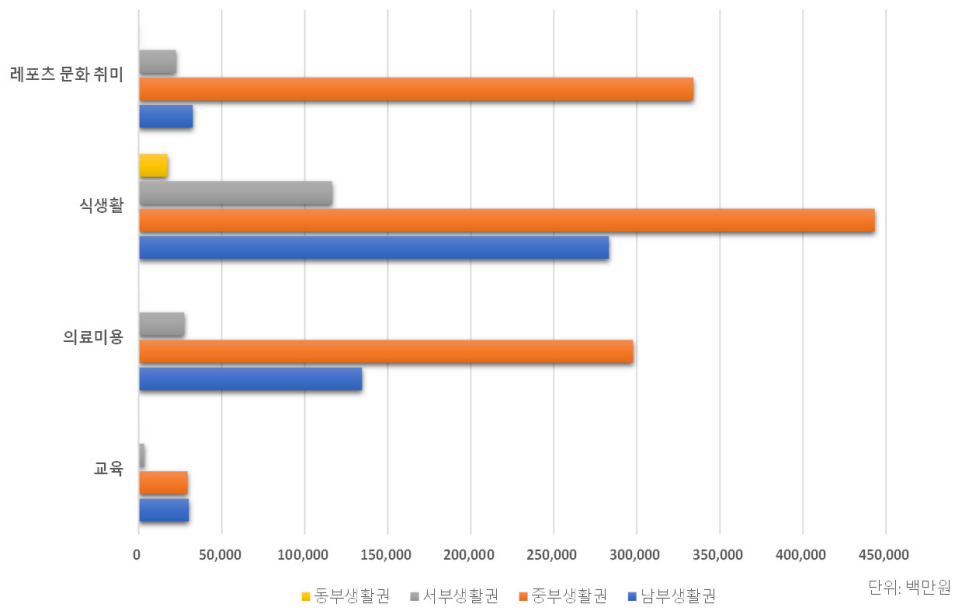
■ 식생활

- 2025년 기준 식생활 관련 업종 김해시 전체 매출액은 약 860,318백만 원으로 나타남
- 중부 생활권(주촌면, 내외동 등 동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51.5%(443,197백만 원)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 세부 지역별로는 내외동이 146,459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북부, 활천, 부원동 순으로 나타남
- 이어서 남부 생활권(장유1·2·3동)이 32.9%(283,227백만 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와 중부 생활권에서 식생활 업종 전체 매출액의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레포츠 및 문화·취미

- 2025년 기준 레포츠 및 문화·취미 관련 김해시 전체 매출액은 약 388,946백만 원으로 나타남
- 중부 생활권(주촌면, 내외동 등 동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85.8%(333,998백만 원)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 지역별로는 회현동이 298,588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주촌면, 내외, 북부동 순으로 나타남
- 남부 생활권(장유1·2·3동)이 8.3%(32,502백만 원), 서부생활권이 5.8%(22,446백만 원)를 차지함. 주된 소비층은 40~50대로 나타남

<그림 II - 9> 주요업종의 생활권별 매출 현황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연구자 작성

III.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정책 과제

■ 공급망 연계 업종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

- 김해시 공급망 연계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소상공인은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가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되어 있음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지역 제조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경기 침체 시 매출 감소와 고용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주로 산업단지 배후에 입지하여 전방산업(대기업, 중견기업)의 경기와 연관성이 크므로 산업단지와 소상공인 연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산업단지 인근 소상공인 대상 공동 물류, 공동 마케팅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작업환경개선, 기술고도화 컨설팅 등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형 서비스업 구조 개선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생활 밀접업종인 반면에, 진입 장벽이 낮아 과당경쟁이나 단기 폐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생활형 서비스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과 생존율의 제고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권별 업종 밀도 분석을 통한 과밀 업종의 조정, 경영 진단,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생활권별 맞춤형 정책

- 김해시 소상공인은 경제생태계는 생활권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남부생활권은 신도시 중심의 소비권으로서, 교육, 외식, 생활편의 서비스의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질적 고도화 정책이 필요함

- 교육·돌봄·생활 편의업종의 품질을 높이고, 로컬브랜드 개발이 요구됨
- 모바일 주문, 배달, 예약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중부생활권은 원도심과 주거, 상업 혼합지역으로 전통 상권에 대한 재생사업, 공실률에 대한 대응책 마련, 상권협의체 활성화 등의 정책이 중요함

- 빈점포 재생과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역사 문화 자산과 상업 기능을 결합한 테마 상권 개발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야간·주말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향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서부와 동부생활권은 제조업 배후의 수요를 활용하여, 근린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함

- 산업단지 종사자 수요를 흡수하고, 공동물류·공동배송·공동구매 시스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개별 소상공인 정책보다는 산업정책과 연동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이 요구됨

■ 데이터 기반의 상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책 개발에 있어 행정구역의 경계보다는 실제 생활권과 시민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상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됨
- 또한 생활권별 특화 상권 지정 및 집중 육성과 업종 분포, 공실률, 폐업률, 유동인구, 매출 변동 등을 반영한 상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시사점

-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단순 생계형 자영업이 아닌, 도시공간구조와 지역산업의 핵심 경제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김해시는 남부, 중부, 서부, 동부 생활권으로 기능이 구분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분포와도 연동되어 있음
 - 그러므로 행정구역 단위의 지원 정책이 아닌, 생활권과 상권의 주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과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정책 수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연계 소상공인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변동, 전방산업의 납품구조, 원가상승 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반면, 생활형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과당경쟁이나 단기 폐업의 위험이 큰 구조를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급망 연계 분야는 공급망 안정, 공동 물류, 설비 및 작업 환경 개선 중심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형 서비스업의 경우 상권 정비, 업종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 지원, 재창업 지원 중심의 구조 개선 정책이 필요함
- 소상공인 육성 자금 정책 등 유동성 지원 수단뿐만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는 325억원으로 단기 유동성 대응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업종 과밀, 상권 쇠퇴, 폐업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재창업 지원·디지털 전환 등을 결합한 패키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과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공간기반 정책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생활권별로 동일 업종의 상이한 수요 구조가 나타나고, 상권 재편, 생활권 균형발전, 산업 배후 서비스 확충 등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음
 - 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민생지원 차원을 넘어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기희(2011), 「대전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1-07, 대전연구원
- 김수은, 박세현(2023),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정책연구 2023-29, 전북연구원
- 박문수(2025),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정과 정책 방안」 연구자료 2025-01, 산업연구원
- 안수지(2025),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연구보고서 25-19호, 국회미래연구원
-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 <https://bigdata.gyeongnam.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김해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2021
- 한국평가데이터(KODATA) '기업정보 DATA 서비스'
- Google NotebookLM '생활형 서비스업의 구조적 한계' 인포그래픽 2026.5.14. 생성

김해정책 BRIEF

- 발행일 : 2026년 5월
- 발행인 : 김재원
- 집필자 : 강길주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 발행처 :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 연락처 : (055) 344-7700
- 편 집 : 디엠커뮤니케이션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김해정책 BRIEF

